

보라색의 유래 및 이미지의 고찰

A study on the origin and the images of violet

김 은 경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석사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조교수

1. 서론

2. 보라색의 기원과 유래

- 2-1. 보라색의 범주
- 2-2. 서양에서 유래하는 보라색 이름
- 2-3. 우리나라 전통색으로서의 자색

3. 보라색의 이미지

- 3-1. 색채심숙성에 따른 보라색 이미지
- 3-2. 보라색의 생리적·심리적 공감각
- 3-3. 보라색 이미지의 분류

4. 결론

참고문헌

Keywords

color image, viol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d suggest useful data in use of kinds of violet that is resulted from general color images of violet.

The origin, history, and general images of kinds of violet were studied, and were classified based on documentary reviews.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kinds of violet were used purple, violet, mauve, and magenta in the order of appearance of its color names and the categories of violet had been extended from dark reddish violet to affiliated colors of bright violet by the development in synthetic dyestuff.

2) The kinds of violet has neutral characters due to the combination of two extreme colors, red and blue, and thereby revealing both attributes in terms of symbolic, emotional, and psychological features of colors. The positive images in kinds of violet can be classified as nobleness, holiness, mysteriousness, sleep/sedation, sensuality, femininity, fragrance, and the negatively classified images are weakness, sadness, melancholiness, death(for example, the mourner's garb in royal families), symbols of moral corruption, and superstition.

논문요약

본 연구는 최초의 합성염료인 보라색을 중심으로 보라색의 유래 및 이미지를 고찰하고 그 이미지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보라색의 종합적인 색채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색이름의 특성에 의한 고찰 결과, 보라색은 퍼플, 바이올렛, 모브, 마젠타 순의 색명으로 사용되어왔으며, 어두운 붉은 보라계열에서 합성염료의 개발에 의한 밝은 보라계열까지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 보라색은 색채 표현의 특성상 심리적, 상징적, 감정적으로 양극단의 성격을 지닌 빨강과 파랑이 혼합되어 양면적인 속성을 지닌 중성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긍정적인 이미지는 고귀한·신성한·신비한, 수면·진정, 관능적·여성적, 향기로운 이미지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연약함·슬픔·우울, 죽음(왕가의 상복), 다락한 힘의 상징, 미신 등의 이미지로 분류될 수 있었다.

I. 서 론

색채는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지각되어지므로 지각현상임과 동시에 경험효과를 가리키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또한, 색채는 형태와 더불어 표현성을 지니므로 사물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주는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Armheim, 1981, pp.433-434) 언어적 기능을 지니며, 저마다 특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박은주, 1995, p.279). 한 예로, '96/97 추동 유행색 팔레트를 살펴보면, 보라 계열의 색채가 신비하고 장식적이며, 미래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보라색은 최초의 합성염료이며, 합성염료의 개발 이전에는 아주 희귀한 색으로 신성함이나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었으나, 합성 염료의 발달과 함께 그 색조의 영역이 넓어졌으며 염료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색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초의 합성염료인 보라색을 중심으로 보라색의 기원과 유래를 고찰하고, 보라색의 일반적인 색채 이미지를 고찰함으로써, 보라색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미지의 특성을 규명하여, 보라색을 중심으로하는 모든 디자인 전개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라색의 색채 이미지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라색의 범주를 먼셀 색체계를 기준으로하여 한국산업표준심의회에서 지정한 남색(9PB-3P미만), 파랑면 보라(3P-6P미만), 보라색(6P-9P미만), 빨강 면 보라(9P-2RP미만), 자주색(2RP-7.5RP미만)에 해당하는 9PB에서 7.5RP까지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서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보라계열의 색명이 우리나라의 색명과 통일되어있지 않으므로 기원과 유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양에서 유래하는 색명들은 가급적 원어 그대로 표기하였다.

2. 보라색의 기원과 유래

2-1. 보라색의 범주

우리나라의 관용색이름인 '보라'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순수 우리말 이름이다.

한국 산업 규격의 '유채색의 기본 색이름'에 관한 규정에서 <표 1>과 같이 보라색은 보라 또는 자색이라 명칭되어 있으며, 대응영어로서는 퍼플(purple)로 되어있다. 또한, 남색의 대응영어로서는 퍼플 블루(purple blue) 또는 바이올렛(violet)으로 자주는 레드 퍼플(red purple) 또는 마젠타(magenta)로 표시되어 있다(KS A 0011-1987, 1992, p.1).

국어 사전적 정의에서도 보라는 옅은 남빛과 옅은 자주빛이 섞인 빛(새우리말 사전, 1987, p.1470)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영어 색이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퍼플(purple)은, 빨강과 파랑이 혼합된 어두운 색, [지금은 드문] 짙은 심홍색으로 정의되어 있으며(Webster, 1987, p.1092),¹⁾ 바이올렛은 파랑면 보라색(Webster, 1987, p.1490), 마젠타는 보라면 빨강(Webster, 1987, p.1092)으로 정의되어있다. 따라서,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혼합

1) 퍼플의 첫째 의미는 보라색을 두 번째는 황제(imperial)를 뜻한다.

된 2차색으로 그 범주는 남색에서 자주색까지의 범주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라색의 범주는 관용색명으로 더 세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보라색의 기본색 이름

기본색이름	대응영어(참고)	약칭(참고)
남색	violet, purple blue	V
보라(자)	purple	P
자주(적자)	red purple, magenta	M

KS A 0011-1987(1992확인)

<표 2> 보라색의 관용 색이름

관용색이름	대응하는 계통 색이름에 의한 표시	대표적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참고)	대응영어(참고)
도라지꽃색	맑은 남색	9.0PB3.5/13.0	Wistaria Pansy
진 남 색	진한 남색	9.0PB 2.5/9.5	
동 꽃 색	칙칙한 남색	10.0P 6.5/6.5	
오랑캐꽃색(또는 펜지)	진한 남색	1.0P 2.5/10.0	Violet
제비꽃 색또는 바이올렛)	남 색	2.5P 4.0/11.0	
비둘기 색	어두운 회 보라	2.5P 4.0/3.5	
창 포 색	파랑 면 보라	3.0P 4.0/11.0	Iris Lavender Mauve
붓 꽃 색	파랑 면 보라	3.0P 4.0/11.0	
라 벤 더	칙칙한 파랑면보라	5.0P 6.0/5.0	
모 브	파랑 면 보라	5.0P 4.5/9.5	
라 일 락	연한 보라	6.0P 7.0/6.0	Lilac Orchid
오 키 드	연한 보라	7.5P 7.0/6.0	
가 지 색	어두운 회 보라	7.5P 2.5/2.5	
자 감 (紫 紺)	어두운 보라	8.0P 2.0/4.0	
모란꽃 색	해맑은 자주	3.0RP5.0/14.0	Magenta
마 쟈 타	해맑은 자주	6.0RP4.0/14.0	
따오기색	연한 보라 면 빨강	7.0RP 7.5/8.0	
진달래 색	해맑은 보라 면 빨강	7.0RP5.0/13.0	

(KS A 0011-1987, 1992, p.8)

2-2. 서양에서 유래하는 보라색 이름

보라색의 기원과 유래는 서양에서 유래하는 보라계열의 색이름을 중심으로하여 천연염료를 사용하던 퍼플, 최초의 합성 염료인 모브, 색료의 3원색 중 하나인 마젠타, 물리적 색이름인 바이올렛을 고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색에서는 '자색(紫色)'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퍼플(purple)

퍼플은 서구 염료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색이다. 퍼플의 어원은 라틴어의 purpura, 그리스어의 porphyra에서 유래하며, 이는 복족류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뮤렉스(Murex)로 불리기도 하였다(Hope & Walch, 1990, p.256). 일반적으로, 고대 타이레(Tyre:현재의 레바논)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퍼플은(Hope & Walch, 1990, pp.256-306) 타이레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Phoenicians)들이 발견하였다하여 페니키안 타이리안 퍼플(Phoenicians Tyrian Purple)이라 하였는데, 이를 발견하게 된 동기는 퍼푸라를 개가 물었을 때, 개의 입이 보라색으로 착색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타이리안 퍼플은 로마 황제가 즐겨 사

용하던 짙은 보라색으로, 직물 1m²을 염색하기 위해 이만큼의 조개를 소비하였으므로 보라색 직물은 상당히 고가였다. 따라서 최고의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후에는 고위 성직자의 공복에도 사용되었다(Hope & Walch, 1990, p.306).

이와 같이 고대 서양에서 퍼플은 아주 귀하고 희귀한 색으로 최고의 지위를 상징하는 색이었으며, 로마시대에는 국왕이 보라색의 의상을 입지 않으면 국왕의 위엄이 손상된다고 까지 하였다. 따라서, 윌슨 (Wilson, 1977, p.787)에 의하면, 로마시대에 있어서 보라색은 그 시대의 개념색이고 개념색인 이 보라색을 때로는 적색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이해영, 1982, p.40). 그러므로, 서구에서 퍼플이라는 명칭의 범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붉은 심홍색까지이며, 시에서 언급되는 퍼플은 때로는 붉은색 또는 심홍색(scarlet)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재 사용하는 보라색보다 더 자주색기가 있는 진분홍, 심홍색(深紅色), 심다홍색(深茶紅色), 성성비(猩猩絳) 등이 모두 퍼플에 해당되며, 이를 다알리아·퍼어플이라고도 부른다(하용득, 1992, p.183). 또한, 보라색의 다양한 색조가 대부분 꽃이나 과일에서 발견되므로, 서양에서는 플럼(plum)²⁾이나, 에그플랜트(eggplant)³⁾ 과 같이 꽃이나 식물의 이름을 그대로 고유색명으로 사용하고 있다(Hope & Walch, 1990, p.256).

2) 모브(mauve)

1836년 영국의 퍼킨(Parkin)은 콜 타르(coal tar)로부터 키니네(quinine)를 합성하려고 하던 중에 최초의 합성 염료인 아닐린(anilin C₆H₅NH₂)을 발견하였다.⁴⁾ 프랑스에서는 퍼킨의 아닐린 염료가 특허를 얻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자체적으로 염색법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를 말로우(mallow) 꽃의 섬세한 이름을 따서 모브라 명명하였으며, 그 이름이 보라색명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Hope & Walch, 1990, p.14, Marshall, 1989, p.218).

이 인공염료 모브는 천연염료시대의 퍼플보다도 밝고 선명하여 브라이트 퍼플(bright purple)이라 하며, 더 연한 것은 꽃의 이름인 헬리오트로프(heliotrope)라 부른다. 이 꽃의 향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화장품의 이미지를 살려주는 색으로도 흔히 쓰이며, 짙은 색은 펜지 퍼플(pansy purple)이라 부르고, 그레이프(grape) 등과 같은 과일 색명으로도 불린다(하용득, 1992, p.193).

3) 마젠타(magenta)

마젠타는 색료의 삼원색 중 하나이다. 마젠타는 보라편 빨강(brilliant purplish red)색을 말하며, 푸크신(fuchsine)이나 솔페린(solferine)과 같은 염료를 말하기도 한다(Hope & Walch, 1990, p.198). 이 마젠타의 유래는 염료가 소개되기 바로 직전에 잔혹한 전쟁을 치룬 이탈리아의 한 마을 이름에서 유래한다(Marshall, 1989, p.218).⁵⁾

마젠타 염료는 녹색 광택이나는 투명한 형태로 용해되면, 농물섬유는 바로 염색되고, 식물섬유는 부식이 된 후에 염색이되는 강한 성격의 불안정한 염료이다. 모브 이후의 새로운 합성 염료인 마젠타는 특히 빅토리아 시기에 크게 유행하였다(Hope & Walch, 1990, p.198). 서구에서는 이 색을 보라색의 경계점에 있

2) 푸룬(prunus)나무의 열매와 같이 어두운 빨강 기미의 보라.

는 것으로 보고 퍼플이라는 색명으로도 자주 사용한다(하용득, 1992, p.193).

4) 바이올렛(violet)

바이올렛은 화학적 색명이기도 하며 물리적 색명이기도 하다. 화학적 색명으로서 바이올렛은 고대 프랑스의 비올레뜨(violette) 식물이나, 비올라(viola) 꽃에서 유래하는 이름이다. 고대에는 퍼플이라는 색명을 사용하였으나, 중세부터는 바이올렛을 보라색명으로 사용하였다. 퍼플은 바이올렛보다는 더 짙은 심홍색(deep crimson)이며, 바이올렛은 짙은 빨강편 파랑(deep reddish blue) 색인 이 꽃의 색을 말한다(Marshall, 1989, p.221).

한국산업규격에는 바이올렛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제비꽃색이 명시되어 있으며, 꽃이름에서 유래하는 바이올렛 계열의 색명은 이외에도 수레국화의 콘플라워(cornflower), 초롱꽃(風鈴草)의 벨플라워(bell flower), 붓꽃의 아이리스(iris) 등이 있다. 바이올렛의 밝은 색은 등(藤)나무꽃의 뜻으로 위스티리아(wistaria), 과꽃에 해당하는 어스터 바이올렛(aster violet), 히아신스(hyacinth), 크로커스(crocus) 등의 꽃이름을 인용하고 있다. 좀더 연한 보라색은 천자색(淺紫色), 라벤더(lavender)라 하며, 분홍색이 더하면 라일락(lilac)⁶⁾의 꽃이름을 따고 있다(하용득, 1992, p.182).

한편, 물리적인 색명법으로 사용되는 바이올렛은 가시영역의 스펙트럼상에서 파랑과 자외선 사이의 가장 짧은 380nm의 파장을 지닌 빛을 말한다(Hope & Walch, 1990, p.310). 다시말해서, 바이올렛은 단지 더 밝은 퍼플이 아니라, 순수한 스펙트럼상의 색이며, 퍼플은 이중의 또는 혼합된 색을 말한다. 따라서, 바이올렛은 광선으로는 존재하나 퍼플은 광선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지닌다(Marshall, 1989, p.218). 뉴턴의 스펙트럼색의 발견에 대한 광학 논문에서도 색의 순서로 바이올렛(violet), 인디고(indigo), 블루(blue), 그린(green), 옐로우(yellow), 오렌지(orange), 레드(red)를 들고 있으며, 퍼플이라는 색명은 없다(하용득, 1992, p.182).

2-3. 우리나라 전통색으로서의 자색

보라색은 우리나라 전통색채에서는 자색에 대응된다. 자색은 적색과 흑색의 간색으로 간주되었으나, 후한의 허신(許慎)이 엮은 중국 최고(最古)의 자전(字典)인 설문(說文)에 의하면, “靑과 赤의 間色”으로 되어있으며, 설문(說文)의 단주(段注)에서 보면, “靑은 마땅히 黑으로 써야한다.”⁷⁾라는 주가 있다. 이와같이, 고대

3) 에그플랜트는 시양 야채의 이름이며, 에그플랜의 어둡고 풍성한 보라색을 말한다.

4) 퍼킨은 키니네를 합성하는 중에 우연히 생긴 적갈색의 침전물 물에 넣고 끓여 아교다운 보라색의 아닐린을 발견했다. 이 때부터 인류의 색채문화는 일변시켰으며 보라색은 최초의 합성 염료라는 명예를 갖게 되었다.

5) 밀라노의 시쪽에 있는 이 마을은 로마의 사령관이자 황제인, 마르쿠스 막센투스(Marcus Maxentius)의 이름을 본따서 마젠타라 명명되었다. 1859년 마젠타에서 9000명이 사망한 전투가 있는 후에, 나타슨(Natanson)은 이 전투에서 혼린피를 연상시키는 보라편 빨강색의 최초의 인조 유기염료 중 하나인 푸크신(fuchsine)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색에 마젠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C. S. McCamy, 1993, p.6).

6) 울리브과에 속하는 하디 슈럽(hardy shrub) 꽃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연한 보라 색이다. 1915년 이후 미국 표준색이며, 라일락은 라벤더보다 조금 더 짙으며, 바이올렛 보다는 조금 더 붉다.

7) 段 玉裁(출판년도 미상), 『說文解字注』(台北:藝文印書館, 1957), 三

중국에서는 자색을 흑과 적의 간색으로 간주하였으나, 흑색을 때로는 청색으로 부르기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말해서, 현대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진한 남색과 검정색을 뚜렷한 구별없이 검정에 가까운 색으로 부르듯이 고대 중국에서도 음의색인 청색과 흑색을 큰 구별없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대의 자색도 현대의 보라색과 마찬가지로 빨강과 파랑이 혼합된 색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찬가지로 하용득(p.181, 1992)도 자색은 백청적색(帛靑赤色)이라하여 청색과 적색이 합쳐진 색으로 보았으며, 이를 자주(紫朱:dark purple) 또는 자지(紫地), 보라빛(bluish purple)이라고도 말한다고 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펴낸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의 2차시안에서는 전통색채를 5개의 색채그룹으로 나누어 색표 및 번셀기호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자색에 해당하는 색들과 자색의 범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고찰한 번셀 기호 9PB에서 7.5RP의 해당하는 색을 함께 선정하였으며, 이를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한국표준 전통색명 및 색상 (紫色系)

전통색명(2차시안)	번셀 기호	색상분류
벽자색(碧紫色)	7.0PB 6.0/9.0	자색
양람색(洋藍色)	0.6P 5.2/11.0	청, 벽, 녹색
청자색(靑磁色)	1.5P 3.4/14.2	자색
남색(藍色)	2.2P 3.2/ 8.0	청, 벽, 녹색
숙람색(熟藍色)	3.2P 3.6/ 5.0	청, 벽, 녹색
연람색(연람색)	3.6P 4.1/ 8.9	청, 벽, 녹색
회보라색(灰靑羅色)	3.6P 6.0/ 7.0	자색
홍람색(紅藍色)	5.7P 3.8/ 8.6	자색
연지회색(嚙脂灰色)	6.4P 6.0/ 4.0	백, 흑
담자색(淡紫色)	9.5P 5.0/ 2.0	자색
보라색(靑羅色)	0.5RP 4.4/13.4	자색
포도색(葡萄色)	0.6RP 3.0/ 6.0	자색
진홍색(진홍색)	2.8RP 6.2/13.7	적, 홍
선홍색(선홍색)	3.7RP 5.4/15.0	적, 홍
자주색(紫朱色)	4.7RP 3.6/10.3	자색
진홍색(眞紅色)	4.8RP 4.5/ 5.2	적, 홍
흑홍(흑홍)	5.0RP 5.0/ 5.3	적, 홍
분홍(분홍)	5.5RP 7.5/5.0	적, 홍
연분홍(연분홍)	5.5RP 7.7/5.0	적, 홍
치색(緇色)	5.4RP 4.4/ 0.2	백, 흑
훈색(훈색)	6.2RP 6.0/11.2	적, 홍
자색(紫色)	6.7RP 3.3/ 8.2	자색
적자색(赤紫色)	7.6RP 5.6/ 8.0	자색
다자(茶紫)	9.7R 2.7/ 2.2	자색

그 결과, 한국 전통색에서 자색은 번셀기호의 7.0PB에서 9.7R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 산업 표준 심의회에서 정한 보라색 범주와 비교할 때 청색과 적색 양쪽으로 더 범주가 넓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 보라색의 이미지

十篇上十六, 「帛赤青也」[段注]「靑當作黑」, “奏나라 시대에 때로 靑을 黑으로 불렀다. 백성들은 이 언어 표현을 그대로 따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그리하여 漢인들이 靑이라고 부르는 色은 실상 黑色이다.”라는 말이 있다(원미량(1975), p.92 in 이해영).

3-1. 색채 삼속성에 따른 보라색의 이미지

색은 감각기관 중에서는 시각으로 밖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고유의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단순히 시각적인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각을 통하여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므로써 특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색채의 감정적인 효과는 온도감, 중량감, 화려함과 수수함, 흥분과 침전, 경연감 등의 수반감정이 따르며, 이는 색상·명도·채도라는 세가지 기본적인 색채반응에 관계된다. 여기서, 온도감은 색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색채이미지에서 빨강색계통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파란색계통은 차갑게 느껴진다. 흥분·진정감은 색상의 온도감과 연관되어 난색계통의 색은 흥분감을 주고, 한색계통의 색은 감정을 진정시킨다. 무게감은 명도에 영향을 받으며, 밝은색은 가볍게, 어두운 색은 무거운 느낌을 준다. 화려함과 수수함은 명도와 채도의 복합적인 색조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딱딱한 느낌(hard)과 부드러운 느낌(soft)으로 표시되는 경연감도 색조에 영향을 받는다(박상호, 1990, pp.65-68).

이텐(J. Itten, 1989, p.16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밝은색은 인생에 있어서의 밝은 면을 나타내며, 암색은 어둡고 소극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라색도 대비효과에 따라 때로는 신비적, 인상적이며, 때로는 강압적, 위협적, 고무적이기도 하다. 어두운 보라색으로 부터는 잠재해 있던 비극적 종말이 일시에 분출되는 것처럼 느껴지며, 반대로 보라색을 밝게 하면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명색으로서 우리들을 매혹한다고 하였다.

<표 4> 색상에 따른 보라색의 이미지

특성 구분	밝은 색	순수한 색	어두운 색
푸른 보라 (PB)	· 장엄, 신비, 심원, 숭고, 천국, 환상, 차가움 등을 연상.	· 보라빛을 띤 파랑이라도 청색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 영국 왕실의 상징색	· 심해, 위엄, 쓸쓸함, 불안, 불길, 불유쾌, 고통, 신비, 애수, 부정등을 연상.
보라 (P)	· 귀인, 젊은이의 색. · 고풍, 고귀, 우아, 환영, 안개, 소극, 실망, 은후, 낭만, 근엄등을 연상.	· 고귀한 이미지로 고대 로마 황제가 입었던 토가도 보라색이었다. · 섬세한 아름다움과 퇴폐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색, 허식의 색, 권력의 색, 자유분방한 관능적인 색	· 의례의 색으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색. ·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포말한 것과 드레시한색으로도 사용.
붉은 보라 (RP)	· 달콤한 젊은이의 분위기. · 복숭아, 유치, 천박함, 경솔, 개성적, 도회적, 지적, 화려함, 색시함 등을 연상.	· 법왕, 왕관, 고위, 궁중, 고귀, 권력, 허영, 자극, 흥분, 현실, 매우 기분이 좋음을 연상하게 한다.	· 안정, 고뇌, 우수, 고풍, 신비, 결실 등을 연상.

(오희선·박화순, 1994, p.139)

색상에 따른 보라색의 이미지는 오희선과 박화순(1994, p.139)이 제시한 색채의 표정과 연상에서 나타나는 데, <표 4>와 같이 밝은 보라색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어두운 푸른 보라 계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며, 어두운 보라와 붉은 보라는 고대의 타이리안 퍼플의 고귀하고 권위적이거나, 성직자의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그렇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는 않지만 밝

계 할 때 더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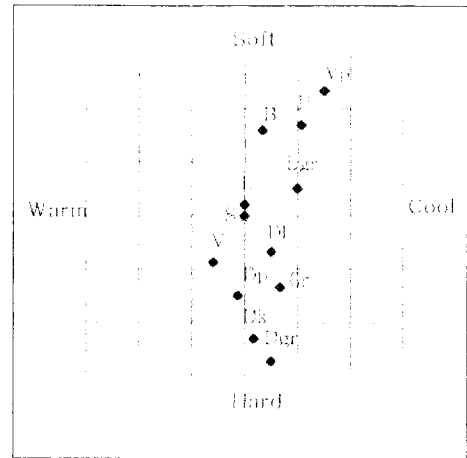
<표 5>에서 나타나듯, 보라계열의 색을 색조별로 분류해보면, 푸른 보라계열색은 화려한 색조와 어두운 색조에 분포하고, 붉은 보라계열은 화려한 색조와 밝은 색조에 분포하며, 보라계열색은 화려한 색조에 분포가 높으며, 밝은 색조와 수수한 색조에는 적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퍼플과 마젠타는 비비드 톤의 선명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강하며, 바이올렛과 모브는 마젠타 보다는 조금 덜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라벤더는 차분하고 옛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표 5> 색조에 따른 보라색의 이미지

색 조	이 미 지	PB	P	RP	
화려한 색조	Vivid (V)	선명하고 힘세며 맑음. 생생하며 주위를 끌기 쉽고 예민하며 활동적	도라지 꽃색,		모란꽃 색, 마젠타, 진달래색
	Strong (S)	V 색조보다 조금 탁색. 튼튼하고 충실한 실용적인 느낌		제비꽃색 (또는 바이올렛), 창포색, 붓꽃색, 모브	
밝은 색조	Bright (B)	밝고 맑으며 빛나는 보석의 느낌. 달고 향기 높은 이미지			
	Pale (P)	사랑스러움, 감미로움, 꿈이있는 분위기		라일락, 오키드	따오기 색
	Very Pale (Vp)	답색이면서 부드러운이 있는 달콤한 감각			
수수한 색조	Light Grayish (Lgr)	산뜻하고 안전하며, 정적인 이미지			
	Light (L)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Grayish (Gr)	색이 적기 때문에 시든 느낌			
	Dull(D)	차분하고 옛스러운 느낌		등꽃색, 라벤다	
어두운 색조	Deep (Dp)	감칠 맛과 깊은 맛이 있는 충실한 느낌	진남색	오랑캐꽃 (또는 팬지)	
	Dark (Dk)	어둡지만 미묘한 빛깔이며, 격조 높은 안정된 분위기		자감(紫紺)	
	Dark Grayish (Dgr)	검은색에 가깝지만 딱딱하고 엄숙하고 차분한 느낌		비둘기색, 가지색	

또한, 小林重順은 색상에 의한 온도감과 색조에 영향을 받는 경연감으로 단색상들을 배열하였는데 그 중에서 5P에 해당하는 색조만을 <그림 1>에 요약하였다. 그림에 나타나듯이, 보라색은 중성색으로 색상에 의한 한난감을 나타내지 않는 색이므로 이미지 스케일상에서 대부분이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 페일톤이 되거나, 닥톤이 되면 차가운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색조에 영향을 받는 경연감은 대체로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색의 경

우 부드러워 보이고 채도가 낮고 명도도 낮은 색의 경우 굳은 느낌을 준다. 굳은 느낌의 색은 긴장감을 주며, 부드러운 느낌의 색은 평온하고 안정된 기분을 자아내게 한다(박상호, 1990, p.66).



<그림 1> 이미지 스케일상에서 5P의 위치

따라서, 보라색은 색조와 색상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2. 보라색의 생리적·심리적 공감각

비렌(1986, p.260)은 스펙트럼상의 모든 색들은 선, 형태, 형상 뿐만아니라 문자, 숫자 및 단어들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냄새, 향기, 소리등과 연관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공감각이라고 한다. 공감각(共感覺)이란 이미지와 음(音) 또는 냄새와 맛과 같이 서로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라색과 연관된 공감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절감

계절의 경험은 모든 색을 계절의 감각에 연상시킬 수 있는데, 봄에는 연한 보라빛 진달래 꽃을, 가을에는 짙은 낙엽색 등을 연상하게 한다.

골드스테인(Goldstein)은 각 색상과 계절을 연관시켰는데, 자주는 성숙된 가을을, 보라와 남색은 정지된 겨울의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이화연, 1992, p.140). 김학성(1991, pp126-127)에 의하면, 봄의 색감정에는 가련한 화초의 연한 자색, 벚꽃색, 자색기미의 하늘색이, 가을의 색감정에는 쓸쓸함을 표현하는 고아한 청자색, 미각을 자극시키는 포도주색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비렌(1986, p.200)은, 가을의 색채는 빨강, 주황, 노랑, 황금색, 갈색, 자색으로 옮겨진다고 하였다. 박상호(1994, pp66-67)는 봄의 색채는 연한 보라색, 벚꽃색이며, 봄 하늘은 보라기미의 파란색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라색은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과 관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봄에는 연한 보라색과 보라기미의 파란색, 가을에는 자주색과 청자색, 겨울에는 보라와 남색을 연상시키므로, 특정한 계절과 연관되지는 않으나 계절에 따라 그 범주가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맛·냄새·소리

보라색의 색이름이 대부분 꽃과 식물에서 유래하므로, 보라색

을 보면, 꽃과 함께 그 향기가 연상된다.

김학성(1991, p129)에 의하면, 좋은 냄새의 색은 밝고 순수하고 섬세한 색으로서 밝고 연한 색조의 고품도 색상이라고 하였으며, 은은한 향기가 높은색으로 자색, 연한 자색인 라일락색을 들고 있다.

비렌(1986, p.226)은 우리가 냄새를 가장 잘 연상 할 수 있는 색은 분홍색, 연보라색, 연노랑색, 초록색등이고 회색이나 갈색, 검은색 등 일반적으로 어둡게 느껴지는 색에서는 냄새를 거의 연상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자색의 비비드, 브라이트 톤은 미각을 자극시킨다고 하였다.

마샬(Marshall, 1989, p.223)에 의하면 라벤더 꽃의 색과 향기는 친숙하여, 향기가 늘 라벤더의 색을 연상시키거나 반대로 라벤더의 색이 항상 라벤더꽃의 향기를 연상시킨다고 하였다.

맛과 연관된 보라색의 공감각의 예로는 수십년전, 영국의 초콜렛 회사가 왕실을 연상시키는 보라색을 초콜렛 포장에 사용하여 성공한 결과, 오늘날까지 보라색 포장은 영국의 초콜렛을 연상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보라색은 상품 포장에 잘 사용되지 않으나,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는 '고급(luxury)'임을 의미한다(Marshall, 1989, p.222).

서양에서는 모든 보라색 음식과 음료가 동양적인 이국적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특히, 동양에서 유래한 '캐슈(cachou)'라는 구중향정(口中香錠)의 모브색 과자가 그렇다. 또한, 가장 연한 각테일은 보라색으로, 유럽에서는 파르페 아무르(Parfait Amour), 미국에서는 크렘 예베트(Creme Yvette)라 불리는 각테일은 바이올렛 오일로 맛과 향을 낸다(Marshall, 1989, p.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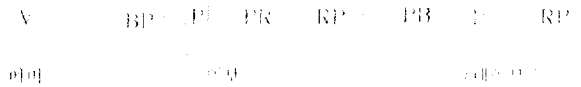
또한, 비렌은 악기 소리와 색과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베이스는 갈색으로, 타악기는 주황으로, 오보에는 보라로 표현하였다. 또한, 알버트(Lavignac Albert)도 영국의 호른인, 코앙글래스(Cor Anglais)의 소리는 바이올렛색이며, 고통, 슬픔, 단념을 호소한다고 하였다(파버 비렌, 1995, p.222). 뉴튼은 분광된 스펙트럼에서 일곱 개의 기본색을 일곱 개의 특성에 관련지우고, 또한 음악의 7음계에도 관련지었는데, 남색은 A음, 보라는 B음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프란시스 갈톤(Fransis Galton)은 어떤 모음에서는 색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는데, U에서 자주색이 연상된다고 하였다(박은주, 1989, p.270).

3) 형과 관련된 보라

독일의 생리학자인 E.H.베버와 실험심리학자인 G.Th.페히너는 색과 형과의 심리적 반응관계를 다음과 같이 연관시켰는데, 여기에서 보라는 유동성을 갖는 타원의 성격을 띤다. 마찬가지로, 비렌의 형과 색에서도 보라는 타원형을 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 이텐과 M. 그레이브스도 인간의 여러 감정에 특정한 색과 형을 관련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라색과 관련된 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색과 형의 인간적 감성의 이미지 작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일본의 색채학자 土家田敏은 먼셀의 기본 10색상의 순색과 대표적인 순수형(形)과 10가지 이미지언어를 연관시켰는데, 청자색은 시원하고 단단하며 수축되고 품위있고 무거움으로, 보라색은 둔한 듯 예리하며 약함으로, 자주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려함으로

순색과 순수형의 이미지 언어를 연관시켰다(박은주, 1989, pp.276-277, 최영훈, 1990, pp.43-45).



<그림 2> 베버, 이텐, 그레이브스의 형과 색

4) 언어적 이미지

문학적인 언어가 의미의 중계역할을 하듯이, 색은 무언가를 의미하는 언어적 기능을 갖는다.

독일의 관념론적 미학자 쟈이징(Adolf Zeising)은 보다 철학적인 의미를 색에 결부시켰다. "절대자의 완전성"과 "현실의 감각적 현상"이 조화적으로 통일된 것이 미라고 보고, 미의 양태를 변증법적 발전으로 도식화하여 「형상·감각적 자극·양」에 따라 나누면서 그것을 24색상에 비유한바 있다.

보라색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빨강색은 「형상을 위주로 하는 미」로 순수미로 나타내고, 파랑색은 「내포적인 양을 위주로 하는 미」로 비장미로 나타내었으며, 보라색은 그 중간의 2차색이므로, 순수미와 비장미의 중간인 숭고미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미적 범주를 다시 3가지로 나누어 위엄미, 장엄미, 영광미로 나타내었다(박은주, 1989, pp. 279-281).

3-3. 보라색 이미지의 분류

이상에서 살펴본 보라색의 일반적인 특성을 토대로 보라색의 이미지를 색채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1) 보라색의 긍정적인 이미지

(1) 고귀함, 권위, 신앙심을 상징하는 색.

보라색은 황제, 신, 추기경을 상징하는 고귀, 권위, 장중함의 이미지를 가진다.

퍼플은 본래 많은 조개로부터 극히 소량의 염료만 얻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색이었으므로, 역사적으로 퍼플은 제왕의 특권과 같은 것이었다. 웹스터(Webster, 1987, p.1092) 사전에 의하면 퍼플은 황제나 왕실(imperial, royal)을 뜻하여, "born to(or in) the purple"은 황제의 집에서 태어남을 의미한다⁸⁾(Marshall, 1989, p.218).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자색은 황제를 의미하거나, 황제나 신선이 거하는 고귀한 색으로 태일(太一)이나 자궁(紫宮)⁹⁾의 의미

8) 군주론에 보면 "Some may say Caesar through generosity won his way to the purple, and others either through being generous or being accounted so have risen to the highest rank"로 퍼플은 가장 높은 자리인 제왕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시에 있어서 퍼플을 royal color라고 부르거나 Royal robes purple이라는 구도 보인다. Porphyrogenitus(born to the purple)는 10세기 비잔틴 황제인 콘스탄틴 7세의 별칭이며, 황제에게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칭호로, 문자 그대로는, 황후의 출산을 위해 퍼플로 드레이프된 방울 사용한 비잔틴 황실을 강조한 것이다(Marshall, 1989, p.218).

를 나타내었다(이해영, 1982, p.49). 태일이란, 천지의 처음, 만물의 근본을 이루고, 도의 세계와 만물의 세계를 하나로 하며, 가장 귀한 천신 혹은 천제가 있는 곳을 말한다. 자궁은 태일이 있는 곳을 말하며(淮南子 第三 天文訓), 별의 이름과 천제가 거함을 나타낸다. 또 진서 부견재기(晉書 符堅載記)에는 천자 혹은 임금의 거처를 가리키고, 신이경(神異經)에는 신선(仙神)이 거하는 곳을 말한다(이해영, 1982, p.49).

또한, 보라색은 신앙심을 나타내는 색이며, 신성한, 거룩함, 정신적인 사랑, 믿음의 색으로 나타났다. 이텐은 보라색을 빨강과 파랑의 혼색(混色)으로, 빨강의 의미인 사랑과 파랑의 신뢰가 합쳐진 신앙으로 표현하였다. 정열적인 육체의 사랑은 적색(赤橙色)으로 표현되고 청색을 띤 적색과, 자색은 정신적인 사랑을 암시하는 것으로 자색은 추기경의 착복의 색이며, 세속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자색에서 결합되고 있다고 하였다(Johannes Itten, 1989, p.166). 이와같이, 보라색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성령의 힘을 상징하는 색으로 종교적 상징성을 갖는다. 파테말라의 성직자들도 수난 주간 동안의 행렬에서 신성함을 의미하는 보라색 의복을 입는다고 한다(Marshall, 1989, p.220). 또한, 현대에 추기경을 상징하는 색은 빨강색이지만, "raised to the purple"은 성직자가 추기경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promotion to the purple도 세왕이나 추기경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이해영, 1982, p.52).

이상에서와 같이, 고대 퍼플은 최고의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황실의 색이었으며, 추기경, 주교와 같은 성직자들에게는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2) 신비하고 서상적(瑞祥的)인 색

동양에서 자색은 자색의 운 즉 서운(瑞雲)으로 표현되었고 자색의 기, 즉 서기(瑞氣)로 나타나 서상적인 색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한무고사(漢武古事)10)에서는 자운(紫雲)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길상적인 것으로 사왕모가 타고 있다고 표현되어 사왕모는 천공이 자색으로 변한 속을 자운의 수레를 타고 내려온다고 적혀 있다. 문학에서도 자색은 신선계의 세계로 표현되어 서상적이고 이상적인 색으로서 간주되었는데, 진홍(陳鴻)의 장한가(長恨歌)에 의하면 양귀비의 선계에서의 의상을 「紫의 精」라고 표현하여 자색의 비단옷을 입고 있으며(範鎮, 1975, p.227), 노조린(盧照鄰)의 칠언고시(七言古詩)인 長安高意에서는 장기(姁姁)의 의상을 자라군(紫羅裙)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의 세계의 상상으로서 아름다운 장기에는 자색의 라군이 어울렸다고 보여지는 것이다(이해영, 1982, p.17). 또한, 삼국유사의 박혁거세(朴赫居世) 탄

생신화나, 신라 탈해왕대의 김알지(金閼智) 신화에서 「자주빛 구름이 하늘에서 숲속으로 드리워져 있고, 그 구름속에 황금으로 된 케에 한 사내아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 옛부터 자주색의 신비성을 알 수 있다(하용득, 1992 p.180).

(3) 관능적·여성적인 색/수면·진정의 효과가 있는 색

퍼플은 관능(sensuality)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shall(1989, p.218)에 의하면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크레오파트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주빛 뚝은 너무나 향기로와 바깥은 상사병에 걸린다!"고 표현하였으며, 키이트(Keats)의 송시 "퍼플로 물들어 진 입"에서는 포도주와 호색의 냄새가 풍긴다고 하였다.

한편, 동양에서 자색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여자의 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¹²⁾. 따라서, 이해영(1982, p.50)에 의하면, 음의 색과 양의 색으로 만들어진 자색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는 여자의 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보라색은 여성과 관련되어서 여성호르몬을 촉진 시키는 색이라고 한다. 稻村耕雄에 의하면 자색계통의 색은 여성 호르몬의 내분비성을 왕성하게 하는 색이라 하였으며, 田口三郎은 출산을 한 여성을 방문하러 갈 때에는 자색의 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산후 회복이 빠르다고 하였다. 또한, 준이찌 노부라(1990, p.163)도 자색은 여성호르몬을 촉진시키며, 여성은 진보라색 옷을 입으면 마음이 상냥해진다고 하였으며, 헤세(파버비렌, 1995, p.100)도 여성은 보라색 빛을 받으면 내분비선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라색은 여성의 성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서양에서 퍼플은 관능적인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양에서 향수나 향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올렛 오일이 중세에는 수면제로 사용되었다. 보라색과 관련하여 유일한 보라색 보석인 자수정도 고대에는 수면을 도와준다고 믿었으며, (Marshall, 1989, pp.221-222), 비렌(1995, p.97)도 자주색은 불면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보라색은 진정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염증, 두통, 치통, 구토 등을 진정시키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판차다시는 "신경증 환자와 신경쇠약자는 보라색이나 연보라색의 영기색속에서 정신욕을 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파버 비렌, 1995, p.83). 배비트는 신경과민을 가라앉히는 전자기 작용의 중심과 극점은 보라색에 있고 혈관계를 진정시키는 전자기 작용의 극점은 파란색에 있으

9) 呂氏春秋 大樂에 이르기를 "太一은 兩儀에서 나오며 兩儀는 陰陽에서 나온다. 兩儀는 천지를 뜻한다. 만물이 나오는 것은 太一에서 만물 어귀 陰陽에 의해 변해간다."(呂氏春秋, 卷五, 大樂)라 하였고, 사기에서는 "가운데에는 天極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 가장 밝은 것은 太一이 항상 거처한다."(史記 卷27 天官書) 또는 "천신의 가장 귀한 자가 태일이다."(史記 卷28, 封禪書)라고 하였다. 자궁은 사기 천관시(史記 天官書)에서 이르기를 "... 뒤에 굽어 있는 사성 끝에 있는 커다란 별은 정비(正妃)이고 나머지 3개의 별은 후궁(後宮)과 같은 것이다. 이를 둘러 에워싼 12개의 별은 왕실을 지키는 변신(藩臣)으로 이를 모두 자궁(紫宮)이라 한다."(史記 卷27 卷27 天官書 in 이해영).

10) "이날밤 칠각(七刻) 공중에는 구름도 없었는데, 은미하게 우뢰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왼쪽 하늘이 자색으로 가득했다. 조금 있자니가 사왕모(四王母)가 이르렀는데 자차(紫車)를 타고..."

11) 'Purple the safety, and so perfumed that the winds were love-sick with them'

12) 원명포(元命包)에 이르기를 「자(紫)라는 것은 이(比)를 말하는 것이고 궁(宮)이라는 것은 가운데(中)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풀이하면, 천신의 운봉과 음양의 열리고 닫힘이 모두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史記, 卷27, 天官書素隱)」라 하였다. 즉, 음양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는 것처럼 남녀에 의해 생물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淮南子, 중국사상대개 권7, p.117, in 이해영)

며, 파란 빛과 보라색의 빛에는 차갑고 진자기적이며 수축적인 성질이 있어서, 이 두가지 빛은 염증이 생겨났거나 신경성 질환에 걸린 모든 기관에 대해 진정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파버 비렌, 1995, pp.95-97). 또한, 비렌(1995, p97)은 파란 빛과 보라색의 빛을 눈에 비추어주면 두통을 덜어준다고 하였으며, 남색은 구토와 치통을 치료하는데 쓰인다고 하였다. 그런 연유에서 인지, 미국에서는 치과대학을 나타내는 상징색으로 보라색계열인 라일락(Lilac)을 쓰고 있다(박은주, 1989, p.291).

이상에서와 같이 보라색은 옛부터 진정과 수면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어온 것을 볼 수가 있다.

(4) 순수함, 낭만적인, 향기로움의 색.

퍼플은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색은 아니나 그 대부분이 꽃에서 보여진다. 따라서, 보라색의 색이름도 바이올렛, 라벤더, 라일락, 모브 등 대부분이 꽃이름에서 유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보라색 이름이 꽃이름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보라색은 꽃과 관련되어 향기로움을 연상시키는 색이며 자연에서 나타나는 보라색 꽃은 낭만적인 순수함을 연상시키는 색이다.

박상호에 의하면, 라벤더 색은 향기로움의 꽃의 이미지 때문에 화장품, 향수의 케이스 등에 쓰여지는 색이라고 하였다. 또한, 옅은 보라색은 소녀다운 로맨틱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부드러운 연보라빛의 모브는 성숙한 엘리트함이 느껴지는 색으로, 인테리어 직물에 많이 사용되고, 앞으로는 인테리어 컬러로서 주목될 수 있는 색중의 하나라고 하였다(박상호, 1994, pp.152-153).

이상에서와 같이 보라색은 꽃과 관련이 되어 순수함, 낭만적인 향기로움 등을 연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보라색의 부정적인 이미지

(1) 미성숙함, 우유부단함, 의기소침한 정서와 관련된 색.

심리학에서 바이올렛은 내면화 및 순화작용과 관련되어 감정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인간의 기(氣)에서 바이올렛은 얇으면 승고한 것으로, 깊으면 우울한 것으로 해석되며, 퍼플은 자아 존중감을 발산한다. 또한, Luscher의 색상테스트에서 바이올렛을 선호하는 것은 미성숙을 의미하며, 라벤더에 내재하고 있는 양면적 감정은 때로는 연약함이나 우유부단함으로 이름 붙여지기도 하고, 동성애와 연결되기도 한다(Marshall, 1989, p.218). 또한, 金公朱(1990, pp.120-121)에 의하면, 외부에 의존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 보라색이 잘 쓰여진다고 하였으며, 유아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기분과 관계가 있는 색으로, 아픈후의 그림에서 이 색이 잘 쓰여지며, 유아들은 본질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칸딘스키는 보라를 '휴식처로 가고 싶게 하는'이라고 표현하고, "보라색과 푸른빛의 적색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꺼져가는 듯한 슬픔을 띄며, 나이 많은 여인의 의상에 적합한 색"이라고 하였으며, 바이올렛은 빨강색이 파랑색에 의해 "인간애를 빼앗긴"이라고 묘사하였다(Johannes Itten, 1989, p.166, hope & Walch, 1990, 310). 피테는 "바이올렛의 광선용 풍경에 두사하면 이 세상의 최후와도 같은 공포가 연상된다"고 하였으

며, 적색에 청색이 가해지면 '견딜 수 없는 현재'를 나타내므로 높은 성직자들은 '푸른 보라색이 꾸준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진자주 붉은 빛에 다다르기까지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이 보라색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텐은 어두운 보라색으로부터는 잠재해 있던 비극적 종말이 일시에 분출된다고 하였다(Johannes Itten, 1989, p.166, hope & Walch, 1990, 310).

이상에서 보라색은 심리학적으로 연약함이나 미성숙함, 우울 등 의기소침한 정서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색채의 대비효과에 따라서 강압적, 위협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죽음(왕가의 상복)과 관련된 색

색채는 장례 의식과 연관되기도 한다. 상복의 색은 죽음 이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며, 삶에서 죽음이라는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비한 힘에 호소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복의 색은 극동 지역에서는 흰색을, 서부에서는 검정색을, 교황은 스칼렛(Scarlet)을, 왕가(Royalty)에서는 퍼플을 착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익스피어는 헨리 4세에서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보라색 눈물(purple tears)에 비유하여 나타내었으며¹³⁾, 17세기에 영국의 일기작가(Diarist) Samuel Pepys는 "보라색 상복을 입은 왕(찰스 2세)"이라는 표현을 쓰므로써 보라색이 다시 주목되었다(Hope & Walch, 1990, pp.211-212).

또한, 이텐(1989, p.166)에 의하면, 보라색은 혼미, 죽음, 독의 충만함, 청자색은 고독, 현신술, 적자색은 신의 사랑과 정신적인 지배 등을 나타내며, 이들은 보라색의 계열이 가지는 표현 가치들이다. 이외에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딧세이올¹⁴⁾ 상연할 때면 표류하는 율리시즈¹⁵⁾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색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파버 비렌, 1985, p.29).

(3) 타락한 힘의 상징인 색

보라색은 신의 색이기도 했으며, 황제나 추기경 등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하지만, 고가의 희귀한 보라색 토가를 입고, 태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로마인들의 모습은 타락의 화신 그 자체였다. 따라서, 보라색은 허식적이고 화려한 색으로 주신제와 같이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색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보라색은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귀족이나 왕가의 붕괴, 몰락등과 관련하여 타락하고 붕괴한 힘의 상징이기도 하다(Marshall, 1989, p.218).

(4) 미신, 죄인의 회개를 나타내는 색

보라색은 신앙심을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지만, 보라색을 어둡게 하거나 둔하게 하면, 어두운 미신을 나타내는 색이 된다. 또한, Marshall(1989)에 의하면,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혼합된 양면적인 성격임을 지닌 색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죄인의 회개를 나타내는 색이기도 하다.

13) " See how my sword weeps for the poor King's death. O may such purple tears be always shed from those that wish the downfall of our house."

14) 일리아드의 후편으로 썬 율리시즈가 트로이로부터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서사시

15) 앳티카(Attica)의 왕

4 결론 및 제언

보라색은 그 색이름에 의해서 그 유래와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퍼플은 고대 페니키안 타이리안 퍼플에서 유래하며, 수많은 조개에서 아주 소량의 염료만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매우 고가여서 황제와 같은 최고 계급에서만 보라색 의복을 착용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색이었다. 1856년 퍼킨에 의해 보라색 합성 염료인 모브가 개발된 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더 밝은 빨강기미의 마젠타가 개발되었다. 바이올렛은 바이올렛의 꽃이름에서 유래하는 화학적 색명이기도하며, 물리적인 스펙트럼상의 보라색에 해당하는 색명이기도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라색은 전통색인 자색에 대응되는데 이는 적색과 청색 사이의 간색으로, 고대 중국 음양오행 사상에서 유래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색의 색채 삼속성에 따른 이미지의 고찰에서 양성적인 성격의 빨강과 음성적인 성격의 파랑이 합성된 보라색은 중성적인 감정을 수반하여, 한난감과 경연감으로 나타내는 이미지 스케일 상에서 대부분이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빨강쪽으로 기우는 보라색은 빨강과 유사한 수반감정을 일으키고 파랑쪽으로 기우는 보라색은 파랑에 가까운 수반 감정을 일으킨다. 또한, 색조에 따라 마젠타는 비비드 톤의 선명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라벤다는 차분하고 옛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색과 관련된 공간각의 고찰결과 먼저, 계절감과 관련이 되서 봄에는 연한 보라색, 가을에는 고아한 청자색과 자주색, 겨울에는 보라와 남색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한 보라색은 가장 향기를 잘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나타났으며, 초콜렛, 연한 카테일등과 관련된 맛을 연상시키고, 오보에의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과 관련된 보라색의 고찰에서 바이올렛은 유동성의 타원형으로 각도로는 120°로 나타났고, 퍼플은 나란히꼴형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인 이미지에 해당하는 보라색은 송고미와 그에 해당하는 위엄미, 장엄미, 영광미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보라색의 색채표현적 특성을 고려하여서 동서양에서 사용된 보라색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보라색의 이미지를 분류한 결과, 긍정적인 이미지로 고귀함, 권위, 신앙심/신비, 서상적인 의미/관능적, 여성적인 색, 수면, 진정의 색/ 향기로움, 순수한, 낭만적인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는 미성숙함, 우유부단함, 의기소침한 정서와 관련된 색/죽음(황가의 상복)/ 타락한 힘의 상징/죄인의 회개, 미신 등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공주, 『색채과학』, 서울: 도서출판 대광서림, 1994.
- 김학성, 『디자인을 위한 색채』, 서울: 도서출판사 조형사, 1991.
- 박은주, 『색채 조형의 기초』, 서울: 머진사, 1989.
- 박상호, 『색채계획』, 서울: 도서출판 효성, 1994
- 오희순·박화순 공저, 『의상 디자인』, 서울: 경춘사, 1994.
- 준이찌 노무라, 김미지자 편역, 『色の 비밀』,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1990.
- 崔英勳, 『色彩學 概論』, 서울: 머진사, 1990.
- 파버 비렌, 김화중(역), 『색채 심리』, 서울: 동아출판사, 1985.
- 河龍得, 『韓國의 傳統色과 色彩心理』, 서울: 명지출판사, 1992.
- Armheim, R., 김춘일(역), 『미술과 시지각』, 서울:홍성사, 1981.
- Hope A., Walch M., 『The Color Compendiu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90.
- Johannes Itten, 김수석(역), 『색채의 예술』, 서울: 지구문화사, 1994.
- Marshall, 『Colour』, London, 1988.
- 김은경, "복식디자인을 위한 보라색 이미지의 고찰",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
- 이해영, "복식에 나타난 자색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 새우리말큰사전(상), 서울:주식회사 삼성출판사, 1987.
- 물체의 색이름(KS A 0011), 한국표준협회 발행, 1992.
- 한국진통표준색명 및 색상-제2차시안-, 국립현대 미술관, 1992.
- C.S. McCamy, "The Primary Hue Circle", 『COLOR Reserch & Application』, Vol.18, No.1, 1993. pp.3-10.
- Shigenobu Kobayashi,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rch & Application』, Vol.6, No.2, 1981. pp.93-107.